

가요계 '포스트 아이유' 관심 집중

주·백아연·크리샤츄 등 10~20대 솔로 여가수들 나란히 신곡 발표

10~20대 여자 솔로 가수들의 콤팩이 잇따르면서 포스트 아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대중음악계에 걸그룹들이 부각되면서 아이유(24) 이후 젊은 대형 여자솔로 가수들은 기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들 활동을 병행하는 태연(28)과 현아(25)는 차차하고 이효리(38), 보아(31)를 이어 가창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가수는 아이유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이들이 나란히 신곡을 내면서 자연스레 '아이유 이후'를 점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가수 주(2000·27·정민주)가 눈길을 끈다. 대중에게 낯설긴 하지만 주는 아이유와 같은 해에 데뷔를 했고 나이도 그녀보다 많다. 물론 포스트 아이유라는 수식은 어색하다.

JYP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다가 2015년 올림피아드엔터테인먼트로 옮긴 주는 1년6개월 만인 오는 28일 신곡 '어느 늦은 아침'을 발매한다.

감성 밴드 '넬(NELL)'의 베이시스트 이정훈이 작사·작곡, 편곡까지 도맡은 곡으로 서정적인 주의 감성에 어울린다는 평이다. 주는 37초 가량의 미리 공개된 영상에서 부드럽고 어린 음색을 뽐냈다.

JYP의 백아연(24)은 SBS TV 'K팝스타 시즌6'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크리샤츄(19)는 지난 4월 중영한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의 준우승자로 체조 선수 손연재를 닮은 화려한 외모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사진오른쪽)

털 싱글 '이럴까면 그려지잖지', 지난해 5월 히트곡 '쏘쏘' 등으로 꾸준히 인기를 쌓아온 그녀는 오는 28일 미니 3집 '비터스윗(Bittersweet)'을 발매한다.

백아연은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다루는 청아한 목소리와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랑스러움을 강조한 신곡 '달콤한 빈말'을 통해 존재감 있는 여자 솔로 가수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크리샤츄(19)는 지난



JYP의 백아연(24)은 SBS TV 'K팝스타 시즌6'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크리샤츄(19)는 지난 4월 중영한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의 준우승자로 체조 선수 손연재를 닮은 화려한 외모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사진오른쪽)



4월 중영한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의 준우승자로 체조 선수 손연재를 닮은 화려한 외모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24일 타이틀곡 '트러블(Trouble)'을 포함한 셀프 타이틀 첫 싱글을 발매하며 정식 데뷔했다.

'K팝스타6'에서 가창력은 물론 에너지 넘치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만큼 차세대 솔로 여가수로 점찍은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안무는 크리샤츄 특유의 상큼하고 통통 튀는 분위기를 살렸다.

가요계 관계자는 "여자 솔로 가수는 실력은 물론 스타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아이유 이후 스타로 떠오른 대형 솔로 여자 가수가 없다는 건 가요계의 편중을 보여준다. 이런 구도를 깨고 대중음악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스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안성기·류승범·이성재·장근석 김기덕 '인간의 시간' 출연

안성기·류승범·이성재·장근석·오다기리 조·후지이 미나가 김기덕 감독의 신작 '인간의 시간'에 출연한다고 김기덕필름이 25일 밝혔다.

'인간의 시간'은 각자 다른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군함을 타고 함께 여행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군함이 미지의 공간에 멈춰버리고 사람들이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담는다.

안성기는 '신 노인을', 류승범은 '경매 보스'를, 이성재는 '정 치인'을 연기한다. 장근석은 '하림'을 후지이 미나가 '이브'를, 오다기리 조는 '이브'의 남자친구를 맡는다.

군함 합장은 성기웅이 책임진다.

안성기·이성재·장근석·후지이 미나는 김 감독과 첫 작업이며, 류승범은 '정작인' '그물'에서, 오다기리 조는 '비몽' (2008)에서 호흡을 맞췄다.

'인간의 시간'은 다음 달 본격 촬영에 들어간다.

/뉴시스

손예진·현빈, 이종석 감독 '협상' 출연 확정

배우 손예진(35)과 현빈(35)이 영화 '협상' (감독 이종석)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제작사 JK필름이 25일 밝혔다.

'협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의 경찰이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범죄스릴러물이다.

손예진이 '협상'을 통해 '하재운'을, 현빈은 '하재운'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민대구'를 연기한다.

연출을 맡은 이종석 감독은 "기존 한국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협상가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 손예진과 현빈의 합류로 극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영화는 다음 달 본격 촬영에 들어간다.

/뉴시스



'캐리비안의 해적' 첫 날 20만명 돌파... 박스오피스 선두 올라

'미녀와 야수' 넘어 올해 국내 개봉 외화 1위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가 개봉 첫 날 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감독 요아킴 뢰닝·에스펜 산드베르)는 전날 1356개관에서 6854회 상영, 20만6539명이 봤다.

이날 매출액은 16억14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58.4%였다.

이 작품의 첫 날 흥행 성적은 '미녀와 야수' (16만6830명)를 넘어 올해 국내 개봉 외국영화 1위에 해당한다.

흥행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25일 오전 9시 현재 예매 관객수 9만8615명 (예매 점유율 46.2%)으로 예매 순위 1위를 유지 중이다.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2003년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 펠의 저주'부터 이어진 시리즈 다섯 번째 편이다. 이 영화의 상징적 존재인 '잭 스페로우' 역의 조니 뎀이 이번에도 주연을 맡았고, 허버트 바르뎀·제프리 러쉬·브랜터 스웨이츠·카야 스키텔러리오 등이 출연했다.

두 번째 편인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2006)은 391만명, 후속작인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2007)는 457만명, 네 번째 작품인 '캐리비안의 해적: 낚시 조류'는 313만명이 봤다. '블랙 펠의 저주' 영진위 집계 없음.

한편 24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갯아욱' (7만8897명), 3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9212명), 4위 '길' (1만814명), 5위 '보안관' (8478명) 순이었다.

/뉴시스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가 개봉 첫 날 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욕설 논란' 김장훈 "부끄러운 일... 모든 분께 사죄"

'욕설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장훈이 25일 "제 잘못에 깊이 반성하며 당분간 지속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훈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제가 한 잘못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내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했다.

김장훈 그러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제 자신을 잘 추스르고 성찰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시민문화제 무대에 올라 욕설을 해 비판받았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